



제07-43호

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(2007년 2분기)

이 연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(iklee@kiep.go.kr, Tel: 3460-1153)

주요 내용

- ▣ 서브프라임 사태로 유발된 신용경색이 미국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2분기 미국경제는 수출 및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전기대비 연율 4.0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 또한 2분기에 일본과 EU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한 반면 중국은 11.9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.

 - 현재까지 발표된 거시지표 상으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신용경색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, 하반기에는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소비부진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.
 - 하지만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경제가 낮은 실업률과 견조한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금융불안이 미국경제의 확장세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- ▣ 한편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사태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작금의 신용경색은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국제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자기실현적 금융혼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.
- ▣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DDA 협상 재개를 위해 지난 6월 21일 개최되었던 G4 포츠담 통상장관회의가 결렬되는 등 현재 DDA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경제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 도모의 수단으로 FTA 체결 등 지역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당분간 각국의 활발한 FTA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미국

- 서브프라임 사태로 유발된 신용경색이 미국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2분기 미국경제는 수출 및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전기대비 연율 4.0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- 미국은 소비와 주택건설투자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비주거투자의 증가율이 1분기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함.
- 상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.6% 증가한 반면 수입은 3.8% 증가하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5% 감소한 3,745억 달러를 기록함.
-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 증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2분기 근원소비자 물가는 전기대비 0.5%(전년동기대비 2.3%) 상승하는 데 그침.
- 반면 신규주택 판매가 2005년 7월 139만 채에서 금년 7월 87만 채로 급감하고 기존주택 판매 역시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- 현재까지 발표된 거시지표 상으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신용경색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, 하반기에는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와 소비부진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- 당초 미국경제는 1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성장세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산가격 하락이 소비부진으로 파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07년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2.0%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음.
- 반면 전반적으로 낮은 실업률, 무역·재정적자 축소, 설비투자 호조, 상업용 부동산의 건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최근의 금융불안이 미국경제의 확장세를 근본적으로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도 제기됨.
- 향후 미 연준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면서 고용, 성장 및 물가 관련 지표를 보아가며 금리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.

일본

-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장기간 경기회복 국면에 있으며, 이미 버블시기의 호황 국면(51개월)과 전후 최장의 호황기였던 이자나기 경기(57개월)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이에 따라 현재 경기회복 국면의 지속 여부와 함께 촉진 및 제약 요인, 거시경제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- 2007년 2분기 일본경제는 개인소비와 수출의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전기대비 0.1%(연율 0.5%) 성장하는 데 그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.
- GDP의 60%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전기대비 0.4%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, 이는 주민세 인상, 가솔린·식료품 가격 인상, 임금수준이 높은 단카이세대 퇴직 등에 따라 개인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임.
- 수출은 전기대비 0.9% 증가하여 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대미 수출 둔화로 인해 전분기(3.4%)에 비해 둔화되었음.
- 민간주택투자는 전기대비 3.5%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1.2% 증가하여 1분기(0.3%) 실적을 크게 상회함.
- 2007년 일본경제는 ‘상반기 하락, 하반기 상승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.1%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2007년 일본경제는 세계적인 신용경색과 소비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으로의 수출 호조 지속, 설비투자 확대, IT 부문의 재고조정 마무리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됨.
-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8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무담보콜금리를 현재의 0.5%로 동결하였음. 지난 2월 이후 0.5%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무담보콜금리의 향후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10월로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함.

중국

- 중국경제는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, 투자 억제,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등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, 투자,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보여 상반기에 11.5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.
- 상반기 중 중국의 국내 소매판매는 증시 호황에 따른 소비 여력의 증가, 농민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등 각종 소비확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5.4% 증가함.
- 2006년 하반기 이후 감속경향을 보이던 고정자산투자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여전히 높고 농촌, 중서부, 동북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만 25.9% 상승함.
-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조치 강화, 위안화 환율의 지속적 절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7.6%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함.
- 2007년 들어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관리목표치를 대폭 넘어서면서 물가관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.
- 경기확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중국의 주가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과 증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.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2006년 5.5% 상승한 데 이어 금년 1분기에 5.6%, 2분기에 6.3%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- 중국정부는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 목표를 3%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미 3월 이후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, 7월 중에는 1997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5.6%를 기록함.
- 이에 중국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금리 인상(4회), 지급준비율 인상(6회) 등 과잉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긴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.
- 따라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나, 금년 가을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,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정도의 강도 높은 긴축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200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(10.7%)보다 다소 높은 10% 후반이나 11% 초반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.

EU

- 2006년부터 경제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EU 경제는 2007년 1분기에 전기대비 0.6%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전기대비 0.5% 성장함으로써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임.
- 이는 분기별 성장률이 0.7~1.0%(전기대비 기준)를 기록하였던 2006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임.
- 이는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임.
- 2006년에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대비 0.7~1.2%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독일경제는 소비와 건설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성장률이 1분기에 0.5%, 2분기에 0.3%로 하락함.
- 2006년 하반기부터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인해 2분기 성장률이 0.3%를 기록하는 데 그침.
-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역시 2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기대비 0.1%, 0.2%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.
- 반면 영국과 스페인은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에 전기대비 0.8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.
- EU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하반기부터 소매판매와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낮게 유지됨에 따라 2007년에도 2.9% 정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됨.
- 한편 유럽중앙은행(ECB)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10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.
- 유럽중앙은행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.0%에서 4.0%로 인상한 바 있음.

국제금융시장

- 서브프라임 사태로 유발된 미국발 신용경색이 국제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 및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.
 -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과 엔캐리 거래의 축소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및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, 주요국 증시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.
 - 특히 한국은 주식시장의 높은 외국인투자 비중, 발달된 선물시장, 엔캐리 거래 축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.
-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신용경색 현상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되는 한편 고수익 금융상품에 유입되었던 엔캐리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는 것임.
 - 하지만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경제가 낮은 실업률과 견조한 투자 및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당초 우려한 수준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.
 - 또한 일본의 금리인상 속도 및 대외금리 차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엔화가 급격히 절상될 가능성이 낮아 엔캐리 트레이드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.
 -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다양한 파생 대출상품이 존재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과 달리 단순하고 투명성이 높는데다 연체율이 낮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.
- 따라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작금의 신용경색은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국제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자기실현적 금융혼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도 있음.
 - 다만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국제 M&A 시장 역시 자금운용 제한 및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.

통상환경

- 2007년 1월 협상 재개 이후, 2007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다자 협상과 주요국(G4: 미국, EU, 인도, 브라질) 간 소규모 협상이 제네바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나, 6월 19일~21일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G4 각료회의가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문제와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 감축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됨.
- G4 각료회의 결렬 후 라미 WTO 사무총장과 농업 및 NAMA 협상회의 의장 주도하에 제네바 차원의 다자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7월 17일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의장의 세 부원칙(modalities)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하였고, 9월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임.
- 그간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쟁점은 농업이었으나, 6월 G4 각료회의 이후 NAMA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브라질, 인도 등 개도국이 공산품의 관세감축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DDA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음.
- 2007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(RTA)은 총 205건으로, 이 중 자유무역협정(FTA)이 1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서비스협정이 48건, 개도국 간 특혜협정(Preferential Arrangement)이 13건, 관세동맹(Customs Union)이 18건임.
- 지난 3월 통계(194건)에 비해 신규 추가된 협정은 FTA가 7건, 서비스협정이 4건이며, 구체적으로는 EFTA·이집트 FTA, SACU, 칠레·중국 FTA, Trans-Pacific SEP, 인도·싱가포르 FTA, 파나마·싱가포르 FTA, EC·알바니아 FTA 등이 이에 해당함.
- 신규 협상이 개시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일본과 칠레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, 일본은 지난 4~5월경에 호주, 인도 및 스위스와 각각 FTA 협상을 추가로 개시하였으며 칠레는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호주 등과 각각 FTA 협상을 개시함.
- 한국과 EU는 지난 5월 6일 협상 출범 공식선언에서 상호간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5월 11일 제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7월 16일~20일 제2차 협상을 개최함.
- DDA 협상 재개를 위해 지난 6월 21일 개최되었던 G4 포츠담 통상장관회의가 결렬되는 등 현재 DDA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나, 세계 각국이 경제자유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체결 등 지역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당분간 각국의 활발한 FTA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* 본고는 [2007년 2분기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편이며, 각 국가별 상세한 경제전망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일본경제](#)

[중국경제](#)

[미국경제](#)

[EU 경제](#)

[통상환경](#)

[국제금융시장](#)